

SK 텔레콤, 2020 년 연간 실적 발표

- 매출 18 조 6,247 억 원, 영업이익 1 조 3,493 억 원, 순이익 1 조 5,005 억 원
- 미디어·보안·커머스 등 New ICT 지속 성장, 영업이익 비중 24% 본격 실적 기여
- '21 년 매출 19.5 조 원 전망..."사상 최초 20 조 원 돌파에 도전할 것"
- "MNO, AI 기반 구독형 컴퍼니로 진화...원스토어 첫 자회사 IPO 추진"

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컨퍼런스콜은 금일 오후 4 시 반 예정이며,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.

(국문) <http://cast.emodoom.com/webcasting/202101052831201/KO>

(영문) <http://cast.emodoom.com/webcasting/202101052831201/EN>

[2021. 2. 3]

SK 텔레콤(대표이사 박정호, www.sktelecom.com)은 K-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 년 연간 매출 18 조 6,247 억 원, 영업이익 1 조 3,493 억 원, 순이익 1 조 5,005 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 일 밝혔다.

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.0% 성장했다. 미디어와 커머스 등 New ICT 사업은 전년 대비 15.3%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, MNO 사업도 5G 가입자 증가로 2.8% 증가했다.

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.8% 늘었다. 특히 New ICT 사업은 미디어 가입자 증가 및 홈·주차 등 보안 신규사업과 커머스 거래액 성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27.5% 상승했다.

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으로 전년대비 74.3% 증가해 1 조 5,005 억원을 기록했다.

SKT 는 '21 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AI 를 도입해 '빅테크 기업'으로 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앱마켓 원스토어는 첫 자회사 IPO 를 추진한다. '21 년 SKT 매출 전망은 19 조 5 천억원이며, 사상 최초로 20 조 원 돌파에 도전한다.

■ MNO 영업이익 턴어라운드...21년말 5G 가입자 900만명 전망

SKT의 별도 기준 연간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.8% 증가한 11조 7,466억원을 기록했다. 영업이익도 전년 9,518억원 대비 7.5% 늘어난 1조 231억원을 달성하며 턴어라운드했다.

MNO 사업은 2020년에도 5G 리더십을 굳건히 했다. 5G 가입자는 2020년 말 기준 약 548만 명을 기록했으며, 올해 말에는 9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.

MNO는 ICT 멀티플렉스 'T 팩토리' 론칭과 24시간 언택트 무인개통 실시 등 팬데믹 상황에 맞춘 다양한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. 이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SKT는 국가고객만족도 23년 연속 1위 등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(NCSI, KCSI, KS-SQI)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이어갔다.

MNO 사업은 지난해 V 컬러링의 성공적 론칭에 이어 올해엔 'AI 기반 구독형 컴퍼니'로 진화를 가속화한다. SKT 고객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■ New ICT 매출 비중 지속 확대...'빅테크 기업' 진화 가속화

2020년은 미디어 등 New ICT 영역의 성과가 돋보였다. New ICT의 영업이익은 총 3,262억원으로,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%(※'19년 14%)에 달해 본격적으로 영업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다.

New ICT 성과의 견인차는 미디어사업이었다.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과 IPTV 가입자 증가로 매출 3조 7,135억원을 기록하며, 전년 대비 17.2% 증가했다.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9.2% 증가한 2,309억원을 달성했다.

보안사업은 출동보안과 정보보안 등 핵심사업과 홈·주차·언택트 솔루션 등 신규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, 전년 대비 12.2% 증가한 매출 1조 3,386억원을 기록했다.

11번가와 SK스토아 등 커머스 사업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 트렌드와 거래액 증가를 기반으로 두자릿수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12.1% 증가한 8,142억원을, 영업이익은 110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.

지난해 12 월 출범한 티맵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렌터카-차량공유-택시 등을 아우르는 '올인원(MaaS, Mobility-as-a-Service) 사업자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.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우버와 택시 호출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(JV)을 올해 상반기 설립할 예정이다.

'K-앱마켓 대표주자' 원스토어는 꾸준한 이용자 증가로 10 분기 연속 거래액이 상승했으며, '20 년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했다. 원스토어는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, SKT 자회사 중 처음으로 IPO 를 추진한다.

SKT 는 지난해 New ICT 영역에서 ▲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▲티맵 모빌리티 설립 ▲ADT 캡스-SK 인포섹 합병 추진을 통해 5 대 사업부 체제를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했다. SKT 는 '21 년에도 AI 를 바탕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,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초협력을 확대해 '빅테크 기업'으로 진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.

SK 텔레콤 윤희영 CFO 는 "SK 텔레콤은 '20 년 5 대 사업부의 완성과 함께 MNO 및 New ICT 등 모든 사업분야가 고른 성장을 지속했다"며 "'21 년은 AI 기반의 빅테크 컴퍼니로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상 최초 매출 20 조 원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"이라고 밝혔다.